

2006 새해설계 ① 일동농협동조합 신영필 조합장

대형 하나로 마트 開場 조합원 편익 도모



대형, 365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 및 하나로 마트 연중 무휴 운영 등을 통한 생필품의 저렴한 공급으로 조합원 실익증대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동농협은 또 교육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영농회 공용집기지원 4천500만원, 조합원 비료 및 농약 지원 2억5천300만원, 조합원 상품권 지원 1억4천300만원, 조합원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4천

유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농업자금 조달로 상호금융 대출 평잔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1천105억5천2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은 유예계약 2천258억8천300만원 및 납입공제료 91억7천4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사 고공제금은 총 369건에 6억3천 300만원을 지급했다.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환원사업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장례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조합장은 또 농협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대형 하나로마트를 개장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현재 이양기대, 트랙터 1대, 콤바인 5대

고품질 쌀 생산 위한 토양개량, 볍씨 보급 지원

“조합원이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전량 수매하고 이를 구리농협과 광명농협, 성남농협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리시청에도 포천쌀을 공급기로 함으로써 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20kg 1포당 구매원가는 3만199원인데 판매가는 3만179원대로 농협이 부담을 안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일동농협동조합 신영필 조합장을 만났다.

600만원, 조합원 자녀장학금 지원 3천900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3천900만원, 노인정 연료지원 1천200만원, 농기계 무상수리 1천 9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총 8억5천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곡의 자체수매 등 판매사업은 139억200만원으로 계획대비 99.3%를 달성했으며 전년 대비 3%의 성장을 보였고 영농자재 및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 등의 구매사업은 72억7천400만원으로 계획대비 106.1%, 전년 대비 7.9% 성장했으며 생활물자부문에서는 94억200만원으로 계획대비 94.8%, 전년 대비 5.6%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과 자기자본확충을 위한 전조합원 및 임직원의 노력으로 출자금도 전년보다 4억700만원이 증가해 총 71억7천500만원의 실적을 보였고 있으며 순이익부분에서도 조합원의 농협사업 전이용과 각종예산의 절감으로 순이익 부분에서도 목표대비 130%가 증가된 11억7천800만원의 실적과 출자배당이 6%인 4억1천700만원, 이용고배당 3.74%인 2억6천만원으로 모두 6억7천700만원이 배당됐다.

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이양기 3~4대, 콤바인 10대를 확보해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일동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오는 18일 결성되는 원로청년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로조합원은 65세 이상으로 현재 일동농협 조합원중 600여명이 원로조합원에 해당한다.

신 조합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농사 대체작목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과작목반 등 대체작목반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재배를 통한 장기적인 원료공급의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농가의 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 편익시설로는 기존의 주유소와 예식장, 농기계수리센터, 버건조저장센터, 창고, 하나로마트, 장례사업부, 365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버건조저장시설 추가공사 및 저온저장창고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동농협 조합원은 지난해말 모두 2천846명이며 준조합원은 7천537명으로 이중 수도자 550명, 시설채소 50명, 사과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 조합장은 그동안 비료와 농약을 지원해왔는데 이것보다는 토양개량, 볍씨 보급 등 지원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일동농협의 2005년도 총 자산은 1천667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민본위 실시구시 항재농장의 정신으로 조합원 중심의 조합운영과 조합원의 경영참여 확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 조합원 지원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전경영 실현,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운영 지표로 삼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 가운데 지역경제의 구심체로서 위치를 지키고 고객만족의 농협으로 조합원 및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한 결과 예수금 평잔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천189억원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상환준비예치금 121억2천 600만원, 정기예치금 15억원을 보

신영필 조합장은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이 뜻을 모아 직원장학회를 결성하고 1년에 400여만원의 모금하여 일동고등학교에 1년에 2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이 3천여명의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를 지어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 조합장은 농협직원들이 조합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출근하여 조합원들에게 다가서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는 등 조합원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다.

특히 영농자재의 주문배달, 비료농약의 구입비 지원, 농기계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추진과 국고금의 수납

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상가 대표들은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부대 관계자들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주의식을 갖고 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31지방선거가 끝나면 농협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② 메주와 헬리스트

한정식과 차가 어우러진 공간



대표 배남석

서울에서 37번 국도를 이용해 내촌 시내 초입에 들어서면 이색적이면서 아늑한 느낌을 받을 만한 상호를 만날 수 있다. 차와 요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한정식 전문점 메주와 헬리스트(포천시 내촌면 읍원리 765-10, 대표 : 배남석).

산기슭에 위치한 언덕 위의 작은집, 자연친화적인 느낌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8년 전 누리마루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운영하다가 작년 5월22일 메주와 헬리스트로 상호를 변경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며 고객의 사랑을 독차지

한 코스로 사찰요리를 배우는 중이라고 한다. 사찰요리는 천연양념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찰요리를 배워서 메주와 헬리스트의 주메뉴와 접목해 보양음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메주와 헬리스트의 주메뉴인 건강정식(2인 이상)은 1인분에 7천원을 받고 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나오는 식단이 고객들의 구미를 돋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음식으로 점심과 저녁메뉴로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행복정식(2인 이상)은 1인분에 1만1500원이다. 신선한 샐러드, 달콤 매콤한 유령기, 고소하며 담백한 모듬버섯 튀김과 된장수육, 우영들깨탕, 궁중 떡볶기, 무쇠술밥, 청국장(된장), 다양한 맛있는 밑반찬 등이 접대손님들에게 적격으로 계절에 따라 특색 있는 메뉴가 제공된다. 간장꽃게장 정식으로 이곳의 별미로 즐겨 찾는 음식 중의 하나다.

이 밖에도 버섯탕·구이, 닭 냉채, 닭치킨, 파전, 김치전, 감자전 등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 애주가들의 술안주로 사랑 받고 있다.

언제나 고객들에게 음식 고유의 깊은 맛을 제공하고 있다는 배 대표는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장과 된장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본점에서

모든 음식에 정성을 듬뿍 담아 제공 독특한 건강식으로 고객들 건강까지

하고 있다.

도자기 조각을 이용한 등근 아치형 지붕이 돋보이는 메주와 헬리스트는 실내 인테리어에 주로 원목과 유리를 이용했다.

그래서인지 산뜻함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벽면에는 한지를 이용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찾아오는 고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차와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고객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재료는 될 수 있는 한 최상의 재료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밑반찬 재료부터 야채 한가자라도 꼼꼼하게 살핀 후 양질의 재료를 구입해 고객의 식단에 제공하고 있어 고객에게 좋은 음식으로 보답하고 있다.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 음식업을 시작했다는 배 대표는 요리 만들기와 배우기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1

재래식으로 담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 맛이 일품이다”며 “고객들에게 깊은 맛을 제공하기 위해 물김치 한가자도 일주일에서 10일정도 자연숙성 기간을 거쳐 물김치 특유의 맛 그대로 식단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 건강까지 고려한 보양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메주와 헬리스트는 상권, 가족모임, 직장회식, 연회 모임, 친술 등 행사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양대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고객을 우대하지 않고 정직한 재료 사용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메주와 헬리스트가 고객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 문의: 031)534-034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산기슭에 위치한 언덕 위의 작은집, 자연 친화적인 느낌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8년 전 누리마루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운영하다가 작년 5월22일 메주와 헬리스트로 상호를 변경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며 고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상권 活性化 지역주민 결의 다져 영북면 운천지역 상가활성화 추진협의회

포천시 영북면의 다양한 지역구 성원들이 관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포천시 영북면은 최근 청사 다목적회의실에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각 상가대표, 그리고 인근 군부대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매 소비 유도,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지역 소비의 큰 주체인 군부대 및 군인가족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운천지역 상가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상가 대표들은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부대 관계자들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주의식을 갖고 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영북면은 각 지역 경제주체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상택 영북면장은 소비도시 형태의 운천지역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두운 시가지로 변하는 등 주민들의 활기가 저하되어 상가 및 군부



포천시 영북면은 최근 청사 다목적회의실에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각 상가대표, 그리고 인근 군부대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성키로 한 운천지역 상가 활성화 추진협의회의는 ▶면장 ▶지구대표 ▶농협 조합장 ▶축협지소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 ▶자율방범대장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장 8명 ▶요식업 대표 ▶숙박업 대표 ▶유기장 대표 ▶PC업 대표 ▶택시업 대표 ▶노래방업 대표 ▶상가번영회장 ▶관광지부장 등 민간단체 8명 ▶1기갑연단 ▶5전차 ▶15전차 ▶25전차 ▶105기보대 ▶21연대 ▶3대대 ▶2698부대 ▶118공병 ▶공군부대등 10개 부대 주임원사등 28명으로 구성하여 운천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민·군·관의 공동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나갈기로 했다.

김미경 추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여러개 사업장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없는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신고한 사업장은 세무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무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산하여 신고 및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일정한 요건(전자적 기업자율관리방식인 ERP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압력용기에 가용접한 러그파단으로 인한 충돌

냉매저장용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H-Beam을 압력용기 외부에 사각모양으로 용접 후 모서리 부분에 클립을 중심에 맞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아래 2곳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H-Beam이 용이하게 휘어질 수 있도록 산소용접기로 가열 후 H-Beam에 러그(Lug)를 가용접한 다음 체인블록으로 당기는 순간 가용접한 러그(Lug)가 파단되면서 재해사건으로 비례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발생 원인은 가용접한 러그(Lug)의 파단된 단면을 보면 러그를 재사용하면서 바닥면을 그라인딩 하여 매끈하게 한 후 용접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채 사용하여 용입이 균일하게 용입 되지 않아 힘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그(Lug)를 본 용접하는 경우에는 작업표준에 의해 러그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작업표준이 있어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어야 하나 본 작업과 같이 가용접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용접을 해야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지 등에 대한 작업표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해발생상황도

동종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재사용하는 러그는 바닥면을 균일하게 그라인딩 하여 용접부위가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단면에 충분히 용입하여야 하며 러그를 본 용접하는 경우와 같이 가용접도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충분한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보험료 적게 내면 유리한가?

많이 오래 낼수록 많이 돌려 받는 구조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에서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이 낼수록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중위수 표준소득 24등급과 가장 높은 45등급을 비교해 보자. 사업장 가입자 등 급은 월 19만 17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완전 노령 연금은 월 78만원을 지급받는다.(40년 기준). 반면 45등급은 월 32만 4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완전 노령 연금은 월 152만 9000원을 지급 받는다. 수익률로 치면 24등급 가입자가 노년기 절대 금액은 45등급 가입자가 훨씬 많다. 소득수준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돼 있어 소득이 낮은 젊은 누구나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돌려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꼭 유리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체계가 저부담 고급여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